서울우유협동조합

곡물의 깊은맛 살린 '흑임자 우유' 출시

서울우유 신제품 흑임자우유 750mL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흑임자·서리태·흑미의 깊은 맛을 살린 건강한 블랙푸드(검은색을 띤 자연식품 또는 이것으로 만든 음식) '흑임자우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 '흑임자우유'는 최근 식음료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랙푸드 3종(흑임자·서리태·흑미)을 적용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이다.

신선한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국산 아카시아 꿀을 넣어 곡물의 부드러운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편리한 캡이 있는 750㎖ 대용량 패키지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마실 수 있다. 특히, 바쁜 아침 식사 대용식으로도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흑임자우유'에 사용된 블랙푸드 3종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조효정 기자

삼바, 지난해 유럽서 매출 8510억 '사상최대'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년도 매출 대비 35% 증가
'베네팔리' 유럽 빅5국가서 1위
'임랄디' 작년매출 2000억 넘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유럽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 2016년 부터 쌓은 매출은 2조원을 넘어섰다.

2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럽 지역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Biogen)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베네팔리, 임랄디, 플릭사비)이 지난해 유럽에서 기록한 제품 매출은 총 7억3830만 달러(약 851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5억4510만 달러)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가 4억8620만 달러(약 562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임랄디(휴미라 바이오시밀러) 1억8400만 달러(약 2100억원),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6810만 달러(약 7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

지난 2016년 1분기 출시된 '베네팔리'는 오리지널 의약품 '엔브렐'을 넘어 유럽 시장 빅 5 국가(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유럽 시장에서 총 14억428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매출을 쌓았다.

지난 해 가장 두드러진 실적은 '임랄디'의 선전이었다. 임랄디는 암젠, 산도즈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각축전 속에서 지난 해 2000억원 이상의 제품 매출을 달성했다. 또 오리지널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연초 8% 수준에서 연말 13%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바이오시밀러 제품 간 경쟁에서도 꾸준히 선두권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임랄디의 판매 호조로 그 동안 베네팔리에 집중됐던 매출 비중도 개선되며, 외형 확대는 물론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가 있었다"며 "지난 2018년 유럽 시장 매출(5억4510만 달러) 중 베네팔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했지만, 임랄디 판매가 본격 증가한 지난해 베네팔리의 비중이 66%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플릭사비는 전년대비 58%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넘어서는 점유율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이 2016년부터 거둔 누적 매출은 총 17억6390만 달러로, 2조원을 넘어섰다. 제품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제 처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만명 이상 환자들에게 처방이 이뤄졌으며, 바이오시밀러 치료 혜택을 통해 지난 해 유럽에서 18억 유로의 헬스케어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우한에 도움의 손길
긴급 구호물품 150박스 지원

마스크 13만개, 방진복 1만개 등
"지속적 관심가져 지원 이어갈 것"

셀트리온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과 윤정원 셀트리온 부사장은 31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마스크 13만개, 방진복 1만개, 고글 5000개 등 구호물품 150박스를 전달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번 구호물품을 우한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일 중국 중부 최대도시 우한시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세계 2위 의약품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대 양상을 보임에 따라 마스크 등 방역물품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우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긴급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셀트리온

/이세경 기자

부인과 초음파 건보 적용
검사비 절반 이하로 '뚝'

보건복지부, 연간 700만명 혜택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의료비 부담 4분의 1수준까지 ↓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고, 연간 7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연간 3천300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랐다.

하지만 건보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이제부터는 3만1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적용으로 7만5400원을 내면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아래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적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이전*		13만7600원 (최대 27만원)	7만8600원 (최대 21만원)	6만2700원 (최대 17만원)	4만7400원 (최대 10만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 최초진단	5만1500원	4만1200원	3만1700원	2만5600원
	외래 (경과관찰**)	2만5700원	2만600원	1만5800원	1만2800원
	입원 최초진단	1만7170원	1만6510원	1만5850원	1만7100원
	입원 (경과관찰**)	8,580원	8,250원	7,920원	8,550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시술수술후 제한적 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프로폴리스 추출물 제품
젤리·액상형태 제조 허용

앞으로는 젤리 및 액상 형태의 프로폴리스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의 요건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 외에도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인삼·홍삼 등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다.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추출 제품은 현재 스프레이, 팅크제(원재료를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형태) 및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라도 제조할 수 있도록 최종제품 요건을 개선한다. /조효정 기자

'가연' 할리우드서 전통한복 美 뽐낸다

베벌리힐스 힐튼호텔서 특별패션쇼

할리우드 트리뷰트가 전통한복 브랜드 '가연'이 2020년 할리우드 트리뷰트 행사 특별 패션쇼를 장식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9일 미국 베벌리 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할리우드 트리뷰트 어워즈 및 오스카 뷰잉' 특별 패션쇼로 '가연'의 전통한복 쇼와 인도 카디 쇼, 디자이너 쌘드라 쇼가 진행된다. 가연 측은 "전통미를 살린 디자인과 100% 실크 염색으로 국내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가연'이 이제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 바람의 향기를 전할 기회가 생겨 영광"이라고 설명했다.

가연 한복

이번 행사 총 연출을 맡은 할리우드 트리뷰트 글로벌 CEO이자 코리아 대표인 신명희(Scarlet Shin) 대표는 "2019 Ms 할리우드 트리뷰트 퀸 수상자, 한국 패션모델, 키즈모델이 함께 할리우드에서 열리는 특별 패션쇼에 서게 됐다. /조효정 기자 princess@